

##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● 깊어가는 가을... "생각하며 독서한다" - 독서주간맞이 출판계 다채로운 행사 / 도서축제, 多讀者표창, 전시회, 강연회계획 (동아일보 9월19일)

● 철학·역사·증권·세무 "만화로 공부한다" - 성서·중국고전 다룬 학습만화시대 활짝 (한겨레신문 9월19일 고종석기자)

● 현실성 떠어가는 명상서적들 - 출판의 신과학운동... '소사회 도덕화' 추구 / 종전의 공허한 내용 극복... 현실문제를 명상 (세계일보 9월19일 申敏亨기자)

● 2종교과서 검정심사 '불공정' 시비 / 내용 검토 의문, 채점기준도 모호 / "심사위원의 채점표 서명도 다르다" 주장 (중앙경제신문 9월19일 金龍善기자)

● 日 경제신화 다룬 저서 인기 / 단기간 번영, 합리·심층적 분석 / 경쟁적으로 정보 필요성 절감 / 「일본이 세계경제를 삼키고 있다」 등 셀러리맨 관심 집중 (내외경제신문 9월20일 南眞祐기자)

● 신예3인 평론집 동시출간 - 권오룡 「존재의 변명」, 김철 「잡없는 시대의 꿈」, 남진우 「바벨탑의 언어」 (내외경제신문 9월20일)

● 「해방전후사의 인식」 10년만에 출간 마무리 / "현대사 새 시각" 미군정~북한사 5권에 담아 / 송건호·김학준 씨 등 60여명의 집필진 참여 / 연구성과 계열·주장별로 묶은 별책도 계획 (서울신문 9월22일 李賢珠기자)

● 미국관련 책 잇단 출간 / 「부시의 경제정책」 비롯 3권 / 고위층 방한러시 속 주목 끌어 (매일경제신문 9월22일 李奉濤기자)

● 전국도서전시회 4년째 중단 / 유일한 책박람회... "장소 못구해" 빌미 / "이념서적 우려해 개최포기" 의혹도 (서울경제신문 9월22일 姜升遠기자)

● 교훈서적류 "베스트셀러 판도 바꾸었다" - 올해 20여종 출간, 서점가 석권 / 인기순위 10위권 이내

5종 들어 (중앙경제신문 9월22일 金龍善기자)

● "책 한달에 한권 이상 읽는다" 32% - 한국갤럽 1500명 조사 / 갈수록 독서분량 줄어 / 남자는 사회과학, 여자는 소설류 선호 (중앙경제신문 9월23일 金龍善기자)

● 노동관계 정치변동따라 변모 - 첫출간 「노동관계총람」서 밝혀져 / 6·29후 한때 '운동' 부추겨 / 건수도 점차 늘어 87년엔 334건 (한국일보 9월23일)

● 한철협 운영위원회로 개편 - 4차 총회서 규약 개정 / 새 회장에 김태경씨 (한겨레신문 9월24일)

● "일제치하·해방전후 회귀본 출판 본격화" - 범우사 윤희두씨 소장본중심 활발 / 역사·미술·경제학·민요·문학 등 다양 / "主思의 이념학술서에 대한" (국민일보 9월25일 朴太堅기자)

● 옛말된 가을 '등화가친' - 1년중 가장 안읽혀 서점가 찬바람 / 행락·입시·교양도서 기피가 원인 / 출판도 외면... 독서량, 겨울에 많아 (조선일보 9월26일 崔植植기자)

● 도서관이용 늘어도 독서량 제자리 - 한국도서관협회 88년 통계 / 입장자중 30%만이 읽어 / 가구당 도서관 입비 5천원 불과 (서울경제신문 9월26일 姜升遠기자)

● "노동문제 알기 쉽게 「노동자문고」 나왔다" - 형장문학사서 「주머니글집」 10권 선보여 / 해고근로자 등 필진... 현장 다뤄 / 지식 대중화로 문화적 갈증 해소시켜 (한국일보 9월26일 徐華淑기자)

● "분화현상 두드러진다" - 80년대 결산작업 비평문학계 / 한 주제 놓고도 뚜렷한 견해차 보여 (세계일보 9월27일)

● 가을문단에 풍성한 처녀시집 / 대부분 20대... 9월에 10여권 선보여 / 민중·해체시 벗어나 다양한 자기세계 펼쳐 (세계일보 9월27일 梁憲錫기자)

● "공백의 분단문학사 자리메운다" - 최근 간행 「한국현대문학사」 등서 시도 / 남·월북 작가·해방후 북한문학 연구 / 시대·장르별로 세분 '민족의 삶' 조명 (중앙일보 9월27일 李京哲기자)

● 파문헌 역사서 캐낸 민중의 삶 - 「태백산맥」 등 대하소설 완간 잇따라 / 빨치산, 군부 등 금단소재 다뤄 / 특정시대 총체적 접근 돋보여 (동아일보 9월27일 金承旭기자)

● 동독문학, 출판계 새 관심대상 /

단행본 이어 계간지 집중소개 / 70년 이후 세계성 지향... 비어만·쿤체 등 / 같은 분단국으로 남북한 편차가 늘 시사 (내외경제신문 9월27일 南眞祐기자)

● "문공부 책 판매금지 중용 불법" - 서울민사지법, 국가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(한겨레신문 9월27일)

● 학생문예운동권 작품집 서점가 진출 - 예비문인 창작활동에 기성문학계 관심 (한겨레신문 9월27일 조선희기자)

● "번역문화 퇴보하고 있다" / 저작권법 발효 이후 해마다 물량감소 / 소설·舊刊에 편중, 신간출간도 위축 (한국경제신문 9월27일 李汀桓기자)

● 학술무크지 상업출판 붐 - 주제 하나 연구는 다양 / 현실분석 예리... 대학가 등서 불티 / 「80년대 사회운동논쟁」은 베스트셀러로 (스포츠서울 9월27일 오정국기자)

● 국교생 "한달 1권 이상 독서" 33% - 삼성생명, '어린이 독서성향' 조사 / "책을 선물로 한두번 받은 적 있다" 45% / 26%가 탐정·추리소설 가장 많이 읽어 (서울신문 9월27일)

● "紙類 유통단지 분당에 세운다" - 도매업체, 을지로상권 이주 계획 (매일경제신문 9월28일)

● 다양해진 아동도서 / 위인전·과학류서적·경제 등으로 영역확대 / 조속해진 어린이들의 호기심 해소에 일역 (세계일보 9월28일 申敏亨기자)

● 출판계 "대환영" 문공부 "항소방침" - "도서 판매금지 중용은 위법" 판결에 엇갈린 반응 / 재야법조 "출판자유영역 넓힌 바람직한 판단", 문공부 "국익 위해선 불가피한 행정적 조치" (경향신문 9월28일 李相文기자)

● 무단복제물 처벌 강화 움직임 / 저작권 아닌 상표권 침해로 규정 / 검찰선 구속수사·美출판사도 고소 제기 (중앙경제신문 9월29일 金龍善기자)

● 蘇 출판수준은 한국보다 떨어져 - 모스크바도서전 참가한 柳益衡씨 밝혀 / 물자부족 영향 제한적으로 출판 / 한국전시실에 소련인 물려성황 (중앙경제신문 9월29일)

● 문예진흥원, 문예지원교료 지원 중단 - 내년부터... 문인들 창작지원금제 전환키로 (중앙경제신문 9월29일 朴海鉉기자)

● "財테크 배우자"... 증권책 불티 -

가을철 서점가... 비즈니스서적 출간 붐 / 경영·마케팅관련 베스트셀러 6종 / 재미있는 소설체... 「1분간 시리즈」 인기 (서울신문 9월29일)

● 북한원전·이념도서 60권 사법심사 의뢰 - 문공부 국감자료서 밝혀져 / 실정법 위반혐의 도서, 검찰에 내용통보 관례화 (서울신문 9월29일)

● "독서의 계절"... 독서 안한다 / 전체국민 평균 "한달에 한권"도 안읽어 / 한권이상 32%뿐... 나이들수록 답뽀아 (서울신문 9월29일)

● "문예진흥원금 작가에 직접 준다" - 문예진흥원, 3가지 시행안 마련... 내년부터 실시 / 기존방식 "제도권 문학만 지원" 비난 일어 / 지원작품 배포로 독자들 혜택 늘듯 (중앙일보 9월29일 李京哲기자)

● 잊혀진 농요 2천곡 캐내 - 이소라 씨 자비 들여 「한국의 농요」 3권 펴내 / 탕이소리·질꼬내기·버바습소리 등 / 6년간 1천여곡 토박이 농민 찾아헤매 (한겨레신문 9월29일 신연숙기자)

● 문예진흥원, 내년부터 '창작지원금제' 시행 - 매년 2백여문인 개별지원 / "무분별 지원... 문예지 난립" 지적 수용 / 영세지 도태·문단판도 재편 불가피 (조선일보 9월29일 金明煥기자)

● 「고르바초프의 경제개혁 투쟁」 위싱턴서 베스트셀러로 / "시장제도 입에 성패" 주장 / 駐 모스크바 외교관 지낸 스웨덴학자 저서 (조선일보 9월29일 金昌基특파원)

● 외국원서 무단복제 무더기 적발 - 3명구속 7명입건 의학서적 등 5억 원대 압수 / 저작권법 이후 최대규모... 대학가서점 등에 판매 (조선일보 9월30일)

● 외서 무단복제 3명구속 - 탐출판사대표 등 / 판권소유 위장 납본까지 (경향신문 9월30일)

● 무단복제서적 무더기 적발 / 3명구속·7명입건 의학원서 등 5억대 압수 / 저작권법 발효후 최대규모 (서울신문 9월30일)

● 한·소 출판문화교류사업 확대 / 합의를 교환 상호정보제공 등 폭넓게 협의 (스포츠서울 9월30일)

● "학술논문 단행본시대 열렸다" / 대중성 확보·발표무대 확장 '양득' (조선일보 9월30일 崔植植기자)

● 「1분간 시리즈」 국내 출간 / 리더십·건강 비롯 내용 폭넓어 / 16인 저술 미·일서 인기 높아 (매일경제신문 9월30일 李奉濤기자)

● 한·소 출판교류 물꼬 터 - 출협, 모스크바서 합의서 약정식 (한겨레신문 9월30일)

● "문예진흥원 내년부터 바뀐다" - 문예진흥원, 올 무더기 창간 재원압박따라 / 고료 지원제 취지변질로 개선여론 높아 / 작가창작지원·도서구입 등 새방안 검토 (한국일보 10월1일)

● "일반독자도 알기 쉽게 풀어쓴 사회과학 출판물 쏟아진다" - '시민대학강좌' 성격의 총서·잡지 잇따라 출간 / 한길사, 100권에 항목별로 사진식 설명 / 잡지쪽, 보수·진보수렴해 공동선 추구 (중앙일보 10월2일 李憲益기자)

● "우리책 동구권 진출길 트였다" / 출협 蘇국제콘체르사와 출판 합작투자 합의 / 蘇서 공동활동준비 위한 실무진 2~3명 초청 (경향신문 10월2일 安健赫특파원)

● 출판 소·동구 진출 교두보 확보 -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서 합의 / 제3국 통한 '교류불편' 완전 해소 / 蘇국민, 한국요리·꽃꽂이·태권도서적 큰 관심 (국민일보 9월29일 朴太堅기자)

● 전환기 반영 '위기관리' 서적 인기 - 경제장관·재벌총수 어떤 책 많이 읽나 / 趙淳부총리는 「울곡전서」 등 고전도 탐독 (중앙일보 10월2일)

●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 참관기 - 열화당 대표 李起雄씨 / 꿈만 같은 첫 참가에 온몸이 전율 / 음울한 거리... 힘차고 세련된 동상·포스터 즐비 (국민일보 10월2일)

● 저작권 총괄 문화산업국 신설 - 문공부의 문화부 조직안 / 바둑 등 사회단체전담 생활문화국도 (동아일보 10월3일 李龍雨기자)

● 한·소 출판외교 결실 / 번역·복제·출판인교류 등 합의 / 재소한 국학학자 세미나 마련 (서울경제신문 10월3일 姜升遠기자)

● "문예진흥원 고료지원 타당한가" - 내년 문예진흥원 중단 계기로 논란 / 지면 좁던 70년대와 사정달라 / 새 방법장구보다 폐지론 많아 (한국경제신문 10월3일 朴聖姬기자)

● "세계수준의 「중국통사」 나온다" - 서울대서 「강좌중국사」 곧 발간 / 개설서 탈피 논문식체제로 편찬 / 고대문명~항일전쟁까지 36장으로 구성 (중앙경제신문 10월3일 金龍善기자)